

길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불안해 하지 마시오.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시오. 나의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에게 이미 그런 말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갑니다. 내가 가서 당신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서 당신들을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당신들도 있게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각부터 당신들은 그 분을 알아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이미 뵈었습니다」(요한 14:1-7)

나는 직책상 자주 외국 여행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해마다 두어 차례씩 여행을 하고, 다녀오면 여러가지 외국의 풍습과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생활을 비교해 보는 적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인상적이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산과 길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산에는 나무가 없고,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 보면 마치 불모지대를 보는 것 같았지만, 요즘에는 제법 산마다 푸릇푸릇한 수목들이 우거져

있어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산이 울창하진 못해도 그런대로 남부끄럽지 않은 푸른 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우리나라도 고속도로가 잘 되어서 전국이 1일 생활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제일 부러운 것이 있다면 도로를 잘 개발해서 닦아 놓고 정리해 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앞으로 자연스럽게 고속도로도 많이 확장될 수가 있겠고 또 도시의 뒷골목이나 농촌의 오솔길도 잘 정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길에 대한 이야기보다 길 위를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길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을 좀 구체적으로 서울의 길, 내가 사는 동네의 길, 내 집 앞에 있는 길,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길을 걸어가든지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게 됩니다. 이렇게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일전에 자동차를 타고 광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느낀 것인데,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왔고 질서가 잡혀 있어 상쾌한 기분으로 여행할 수 있었는데 막상 광주나 전주, 서울 같은 도시에 들어서면 불쾌해졌습니다. 불결하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보기에 흉칙한 물건들이 있어서 뿐이 아니고, 길의 질서가 온통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차는 사람을 함부로 다루고 사람은 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밀고 밀치는 서울의 거리가 추하고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길이 아무리 말쑥해도 자동차나 보행자들이 거리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혼잡하고 불쾌하다는 인상을 주

게 됩니다.

이렇게 서울의 거리가 불결하고 혼잡하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나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매일 겪는 일입니다. 성공회 신부 노대영씨가 「서울 종로의 중심가를 걷는 사람들의 걸음 걸이는 도시인의 것이 아닌 비도시인의 걸음걸이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거드름을 피우고 다니지만, 우리 자신을 꼼꼼히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촌 사람들입니다. 길으로는 번지르하게 차렸지만 마음은 어수룩하고 남에게 잘 속아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종로나 명동 번화가를 다니다가 제일 걱정하게 되는 것이 마주 오는 사람들과 부딪칠까 하는 염려입니다.

나의 사무실 7층에서는 종로 5가의 뒷길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는 가끔 서로 마주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단원 버스나 번잡한 거리에서 본의 아니게 맞부딪치면 누가 먼저 실수를 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상대방이 실혹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인지 망서리게 됩니다. 길 위에서 이렇게 맞부딪치는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고 한 마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차고 지나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 생활의 가장 사소한 일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의 혼란을 엿보게 됩니다. 결국 길 위에서 서로 마주 부딪치면 어느 편이든 먼저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법한데 서로가 누구의 잘못인지 가정을 내리지 못하고 혀를 차며 스쳐 지나가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무리 번잡하고 무질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생활의 길에 질서가 잡혀지면 우선 나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또는 무슨 탈선 행위를 했는지 분명해지지만, 생활의 길이 번잡하면 이

런 분별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흐리멍텅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활의 길에서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길 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활의 길에서 이처럼 당황하고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길을 걷는 데 있어서도 갈짓자로 걷는 것입니다.

가끔 아침 출근길에서 뒷골목에다 쓰레기 연탄재를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 안에 있는 쓰레기 처리를 길에 버린다는 이러한 무책임한 일을 우리의 생활의 길에서도 저지르는 수가 많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고야마 고스케씨가 쓴 <길의 학대>라는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미있는 공간에서 살고 싶다. 다시 말해서 한 공동체 안에서 화해와 행복을 자아내는 의미있는 공간에 살고 싶다. 화해와 행복은 결코 잡동사니 같은 사물을 한 군데 쌓아 놓은 데서 생겨지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은 마치 공동체증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런 공동체증에 걸린 공간에서는 인간관계에서 행복과 화해를 찾기가 어렵다. 우리가 영감을 받고 창조적인 생활을 하려면 이러한 길 위의 교통체증을 피해서 우리 생활의 길 속에서 아름다운 섭리를 행할 때만 가능하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서 사람이 아름답게 정리가 된 길을 걷는다는 일, 그리고 공간을 재정비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고 경건한 행위로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행위란 마태복음 26장에 보이는 것처럼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발에 값진 기름을 부어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씻는 행위를 말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판문점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산군이 도끼로 미군 2명을 죽인, 전세계에 충격을 준 사건이 있는 뒤, 우리 국내 신문에서는 논란이 벌어졌었습니다. 박대인 선교사가 신문 컬럼에서 공산군의 잔인성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인가 하는 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연세대의 이 규호 박사가 이에 대하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은 그렇게 잔인한 것이 아니라는 반박문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분의 주장을 듣고, 인간의 잔인성이 어느 특정국민에게 더 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代父)」라는 영화를 본 사람은 미국인의 잔인성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썩은 세계, 또는 개척시대에 미국 사람들이 인디언에게 한 잔인한 살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성을 잃고 잔인성을 나타내는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민족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길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척, 친구, 학교, 직장에서 나와 어떤 인연으로든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 다 나의 인생의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 어떤 사람들하고는 인정과 사랑을 나누고 또 어떤 사람들하고는 증오 질투 적대 관계를 가지는 수도 있습니다. 손에 도끼를 들어 내리치지는 않지만 말 없이 속마음으로는 살인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이해관계로 감정문제로 딱 마주 부딪치면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노려보고 칭칭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서 겪는 교통체증입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그 길이 막혀버리게 되고 서로 길을 막아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그 길에서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되려면 우리는 진정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길, 순리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겸손한 태도, 남에게 양보도 하고 서로 맞부딪칠 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거침 없이 나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체증에 걸리지 않고 화해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관광객이 거니는 길이 아니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예수에게 기쁨을 부어 줘야 하는 참인생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택하는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하고 걸어 가는 길을 성서에서 최초로 보여 준 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주전 2천년경에 있었던 인물인 아브라함을 학자들은 개인의 이름이라고도 하고, 부족의 이름이라고도 하나 어쨌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부에 따라 가족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주했던 하란을 등지고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향해 자기 권속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데, 우리는 여기서 현대의 믿음의 행로를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중심지였던 하란을 등지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을 향해 떠난 것은 결코 아브라함이 이 세속의 세상을 떠나 도피행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미지의 세계에 발을 옮겨 놓은 그의 일생은 그야말로 신앙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등지고 고립하기 위해 도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법칙을 등지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자유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떠난다는 것은 꽤 불안스러운 것입니다. 한 발

앞에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불안스럽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불안했던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땅에 들어갔다가 애굽왕 아비멘렉에게 탄로가 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자유의 땅, 행복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자유의 불안이 늘 뒤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불안은 언제나 자유에의 불안입니다. 자유에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가 성장해서 부모의 사랑의 손에서 벗어날 때 느끼는 막연한 불안도 이와 똑같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러한 불안 때문에 길을 떠나지 않고, 란에 그대로 머물렀더라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에의 결단은 언제나 불안을 이기는 과정을 밟아야 하고, 불안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의 길은 언제나 고독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그리스도인을 진리의 하늘나라에 이르게 합니다. 포근한 자가용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비행기로 하늘을 나르는 그러한 안일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보드나운 생활, 풍족한 생활, 신기한 외국의 풍습에 매혹을 느끼려고 하는 관광의 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와 화해와 행복을 찾는 순교자의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말을 마음에 새겨서 산다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당신들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요한 8:31-)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나 자신만의 길을 걸습니다. 이 길은 내가 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개척하는 길입니다.

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길은 종로나 명동 번화가에서 서로 부딪치는, 그러한 혼잡한 길은 아닙니다. 그 곳은 기도와 예배로써 주님을 아름답게 하며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순례자들의 길이요, 경건하고도 엄숙한 길, 좁은 문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례의 길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순례의 길에서 서로 도와주며 위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이 세상의 멸망을 구원하기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중재의 기도, 남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는 자유에의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